

청소년 진로결정수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황순덕** · 김연희*** · 이희선****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미친다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 등을 연구문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정부시 소재의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자료를 토대로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의 독립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각각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으나,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각각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도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이들 변수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은 자기효능감($\beta=.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자아정체감($\beta=.211$), 사회적지지($\beta=.105$)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련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등의 변수들을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의 크기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 본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2017)을 토대로 발전시킨 것이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진로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원하는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청소년기는 안정된 성인기를 보내기 위한 진로탐색 및 설계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요인 파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대학입학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으로 진로관련 전문지식이 대학입시에 많은 영향을 주면서 청소년 시기의 진로교육이 더욱 큰 관심사가 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수준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기존문헌들은 자아정체감, 불안, 애착수준, 자아존중감, 학교환경, 자기효능감, 완벽주의, 진로장벽, 학업정서, 사회적지지 등 다양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진로결정수준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진로결정수준의 결정요인으로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을 주요변수로 식별 및 설정코자 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들 변수들이 보다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단계를 돕는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개인의 삶에 중요한 순기능적 역할을 하며, 어떤 일에 대한 성공적 완수를 가능케 하는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주요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문헌들과 차별화하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어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자아정체감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융합을 통해 하나의 자아를 찾기 위한 자아 통합 과정인 동시에 그와 관련된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이 높고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김봉환, 2010).

또한 인간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환경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사회적지지가 청소년의 사회적 적응을 돕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는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가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그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박미경, 2009).

그러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의 결과물인 진로결정은 자아정체감이나 사회적지지의 변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Bandura, 1997).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이론과 경험적 연구문헌을 토대로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등의 영향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인들이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그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어떠한지?”를 연구문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 및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진로교육 정책수립 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자아정체감 등의 변수들을 학교현장에서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리수단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이들 변수들 간 우선순위 크기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개발 및 진로지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및 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

1. 이론적 논의

1)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은 한 개인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들어가기 위한 의도된 선택의 표현이다(Crites, 1973). 그러므로 진로결정은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진로방향을 분명히 설정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Making Level)은 이러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정도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안된 것으로, 한 개인의 생애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과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된 과정에서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김봉한, 1997). 즉,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의사결정 진행수준과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정도, 곧 역으로는 진로미결정 수준을 의미한다(고향자, 1992).

Wanberg & Muchinsky(1992)은 어떤 사람은 진로결정을 확실히 하는데 반해, 다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에서 진로미결정의 개념이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 Crites(1981)와 Gordon(1998)는 진로미결정을 개인이 확실한 직업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개인의 본성이나 사회·문화적 배경보다는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체험활동, 정보수집 등의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부족한 구성요소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임은미·장선숙(2004)은 대학의 전공이나 직업선택의 확신정도를 진로결정수준이라고 하

였다. 이는 개인의 특징이나 불확실한 기회에 대한 평가 혹은 진로미결정 정도에 대한 반작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거론되는 개념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이나 직업선택과 연결된 진로결정 진행수준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최은영(2011)은 진로결정수준을 개인이 진로선택을 할 때,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 흥미 등을 확실하게 이해함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실행 가능한 최적화된 대안선택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수준을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으로 보는 김현희(2015)는 진로결정수준을 진로확신과 미결정으로 구분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 분야에 대한 확신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진로결정자와 진로미결정자의 이분법적인 분류에서 출발한 진로결정과 진로미결정에 대한 초기 연구는 70년대 중반부터 이 둘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연속적인 개념으로 보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진로결정수준을 개인차를 지닌 과정의 연속으로, 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선택의 한 지점으로 본다. 즉 개인의 진로나 직업 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행수준으로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함의 정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자아정체감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란 성취와 같이 완성되거나 고정적이며 불변하는 것도 아닌, 사회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청소년기에는 자신을 탐색하는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고 하였다.

박아청(1984)은 Erikson(1968)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자아정체감을 자신이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적인 인지라고 보았다. 또한 정미란(2006)은 자아정체감에 대해 개인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또는 사고라고 표현하였다.

Waterman(1982)은 자아정체감을 자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탐색, 인생의 목표나 가치, 신념 등에 대한 신중한 결정, 결정한 것의 실행, 자기수용의 정도,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감각,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의 일곱 가지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을 자아가 겪는 갈등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자기 이미지이며, 성장과정에서 자기를 투영해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반영되는 통합된 자기상이라고 표현하였다.

변세권(2001), 최성열(2001), 서재복 & 임명희(2014) 등은 자아정체감을 인간이 성장하면서 맺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이 갖는 사회적 역할, 인생에 대한 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 자신만의 독특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아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식적이면서도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황인실(2004)은 개인적 정체성보다 더 함축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정체감을 시공을 초월한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개인 자신의 단순한 인식 이상으로 동질성과 연속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새롭게 갈등하는 욕구, 내적충동, 외부자극, 도덕적인 가치 등을 내면적으로 수용하여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재통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rikson(1968)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포괄할 수 있는 의미로써 자아정체감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사람인가?’ 등에 대한 탐색적 물음에 대한 답으로써 행동, 사고,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일관성, 곧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의 고유함에 대하여 갖는 안정된 느낌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3) 사회적지지

인간은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아를 발달시키고, 사회의 역할 기대를 적절히 이행하며 생활한다. 이렇게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는 사회적지지(Social-Support)의 개념은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던 1970년대 초반부터 Cassel, Gore & Kaplan(1977)의 연구논문을 시작으로 사회학, 심리학, 간호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회적지지에 대하여 Cobb(1976)는 개인이 사회적지지원인 부모와 교사,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믿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 작용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게 하는 정보의 구성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사회적지지를 Hoberman & Cohen(1983)은 한 개인이 타인 즉, 그와 관계 맺는 모든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였다. 특히 House(1981)는 관심, 도움, 정보, 칭찬 중에서 하나나 둘 이상을 포함한 대인 관계적인 행위로 개념화하며,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로 구체화하였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지지에 대해 한 개인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에 의해 제공받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라고 정의하며, 정서적·물질적·정보적·평가적지지 등 4가지 구성요소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에 대해 이선영(2004) 및 심승원(2000)과 임현승, 강성옥 & 양영미(2012) 등은 타인의 행동과 지각의 인정, 타인으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과 물질적 도움 등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이라 정의하였다.

고기평(2008)은 사회적지지는 대인관계로부터 자신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지각하고 자신의 독특함을 인식시켜 주는 자아감을 형성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행동변화에 꼭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제공하고, 완충제 작용을 하여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유용한 정보와 기술제공으로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지지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변인에 대한 개념화, 조작화, 측정방법 등의 접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내린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원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여, 사회적지지를 개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것,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게 하는 것, 의사소통 관계망이나 상호작용의 구성원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 등 대인관계로부터 제공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개념을 처음 소개한 캐나다의 심리학자 Bandura(1977)는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적절히 조직화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체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과 성취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에게 동기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개인의 행동변화를 중재한다고 주장하였다(Bandura, 1986).

Wood, Mento & Locke(1987)은 자기효능감을 과제수행에 수반되는 자신의 능력과 신념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표현하였다. 특히 Schunk(1984)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얼마나 잘 조작하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능력 판단이라고 말하면서 상황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강현 외(2005)는 자기 자신에 대한 유능성과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정의하면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려운 과제를 자기능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목표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약한 사람은 목표성취 활동이 소극적이고 과제회피 경향이 심하다고 하였다. 이훈구(1997)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미래의 예측능력, 자기통제감 등이 곧 자기효능감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자아실현의 동기부여 역할을 하고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발전까지 꾀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오현진(2007)은 자기효능감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화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판단으로, 박영희(2010)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행하는 자신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믿음 또는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Betz & Hackett(1981)는 자신에 대한 신념을 진로발달영역에 도입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진로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준비도 즉, 성공적인 과업 수행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Taylor & Betz(1983)는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확신성, 곧 자신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게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상의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존재 가치보다는 필요한 과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과 믿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가설 설정

1)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의 관계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자기효능감과 관계에 대한 연구가 희소하여 이들 변수와 더불어 유사개념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가설 1.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자아정체감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과 관련하여, 조명실·최경숙(2007), 황현정·백지연(2015)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되어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민경(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인과관계가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설1-2>와 관련하여,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와 송현옥·박아청·최성열(2010)은 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대해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조명실·최경숙(2007), 황현정·백지연(2015)의 연구들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정옥(2011), 한용재·박지원·박현석(2016), 김종운·김현희(2016) 등의 연구도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에 각각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자기효능감의 변수는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의 변수들과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가설 1을 설정하였다.

2)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독립변수들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해당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가설 2.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과 관련하여, Harren(1979)은 자아정체감이 낮고 부족할수록 진로결정력이 낮은 진로미결정의 특성을 보이고,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감과 성공감이 크다고 하였다(Skovholt & Morgan, 1981).

박아청·신순란(1999), 유명미·문승태(2005), 고미나·박재황(2008) 등은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높게 가진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서재복·임명희(2014)는 자아정체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은석·유선경(2013), 황현정·백지연(2015)도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진로선택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설 2-2>와 관련하여,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중 여대생의 자존감지지와 평가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들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요인들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한용재·박지원·박현석(2016), 김종운·김현희(2016)

등의 연구들과도 일치한다.

한편, 박미경(2009), 신정옥(2011), 한수현(2003), 황현정·백지연(2015)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에 높은 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각각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가설 2를 설정코자 하였다.

3)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매개변수로 설정한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로 설정한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과 관련하여,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이상길(2008), 구본용·유제민(2010) 등은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매우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혀냈다.

이현주(2012)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데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고, 조준오·송주연·김윤희(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17%의 설명력을 가지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어 가설 3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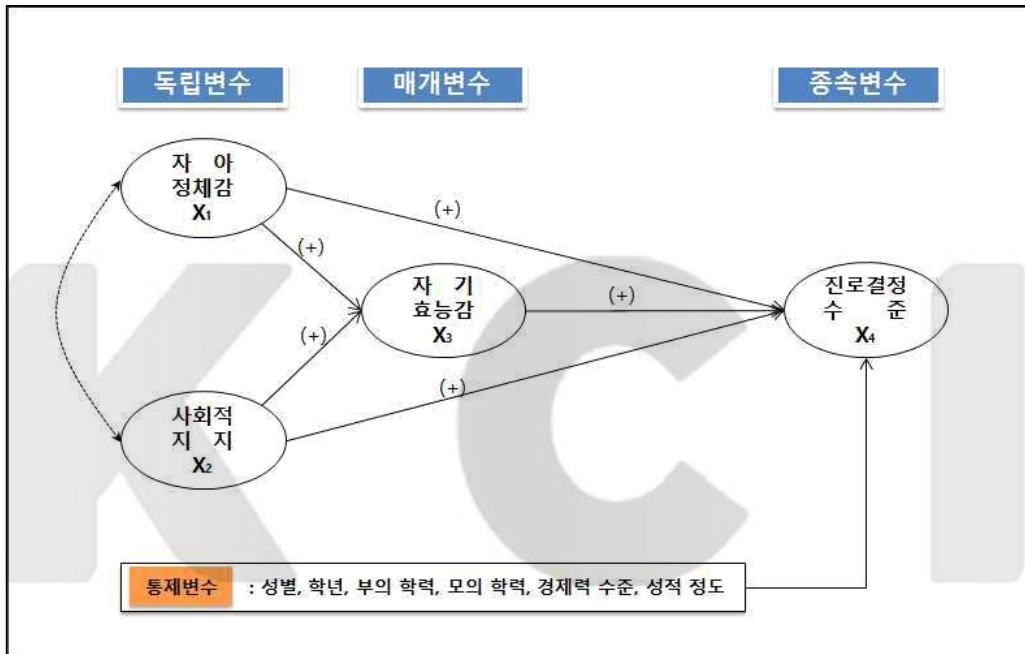
Ⅲ. 연구모형 및 변수측정과 척도구성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그리고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개념 간 인과적 관계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간

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를 각각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이들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더불어 독립변수들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코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경로모형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경로모형은 변수들의 관계가 일방적인 단일방향으로만 흐르는 비대칭적인 인과관계(recursive causality)를 갖고 있으며, 인과적 폐쇄성(causal closure)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둘째, 경로모형 내에서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는 선형(linear)이며,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 등의 변수는 인과체계에서 외부변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임을 가정하였다.

2. 변수측정 및 척도구성

1) 진로결정수준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진로결정수준을 자신의 진로나 직업의 선택과정에서 나타나는 진로결정의 진행수준으로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신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측정지표로는 Osipow(1980) 등이 개발한 진로결정검사도구(Carrer Decision Scale: CDS)를 한국 문화의 특성에 맞게끔 고향자(1992)가 변안한 측정도구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해 사용하였다. 즉, ① 아직 마음에 드는 진로를 찾지 못함, ② 희망진로가 불확실해서 결정을 미룸, ③ 희망진로 중 어느 진로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④ 적성에 확신이 없어서 진로설정을 할 수 없음, ⑤ 진로결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⑥ 어떤 진로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함, ⑦ 희망진로가 있지만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결정을 미룸 등 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2)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정체감을 개인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인식·행동하게 하는 일관성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측정지표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자아정체감의 검사도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①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편임, ②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는 편임, ③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이끄는 편임, ④ 매사에 결단력이 강한 편임, 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 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스스로 함, ⑦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임 등 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지지를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관심, 도움, 정보, 칭찬, 사랑 등과 같은 대인관계로부터 제공 받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정의하였고, 측정지표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검사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① 내가 중요한 선택할 때 합리적인 조언을 해줌, ② 내게 항상 적절한 충고를 해줌, ③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줌, ④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에 용기를 줌, 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잘 설명해 줌, ⑥ 내게 생긴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줌, ⑦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줌 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코자하였다.

4)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수로 자기효능감을 개인의 존재 가치보다는 필요한 과업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과 믿음으로 정의하였고, 김아영·차정은(1996) 등이 제시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② 어떤 문제에 대한 내 판단이 대체로 정확하다는 믿음, ③ 잘못된 방향설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 ④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듦, ⑤ 주변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남, ⑥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좋아함, ⑦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힘 등 7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5)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속성변인은 성별, 학년, 부·모의 학력, 사회경제적 수준, 성적정도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6개의 문항을 명목·서열척도로 구성하여 측정코자하였다. 그리고 진로결정 수준,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등 각 변수의 설문문항들은 리커트의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을 활용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각 변수의 요인별 인자점수를 각 변수의 대표적인 복합척도의 값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지수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상 변수들의 측정항목 및 출처는 <표 1>과 같다.

<표 1> 변수들의 측정항목 및 출처

구분	측정변수	측정항목	출처
독립 변수	자아정체감	① 삶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는 편임 ②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하는 편임 ③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보다 이끄는 편임 ④ 매사에 결단력이 강한 편임 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임 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스스로 함 ⑦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기꺼이 맡는 편임	박아청(1996)
	사회적지지	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조언을 해줌 ② 내게 항상 적절한 충고를 해줌. ③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줌 ④ 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에 용기를 줌 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 잘 설명을 해줌 ⑥ 내게 생긴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해 줌 ⑦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줌	박지원(1985)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② 어떤 문제에 대한 내 판단이 대체로 정확함 ③ 잘못된 일은 신속히 바로 잡음 ④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듦 ⑤ 나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음 ⑥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을 좋아함 ⑦ 어떤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함	김아영 차정은 (1996)
중속 변수	진로결정수준	① 나는 아직 마음에 드는 진로를 찾지 못함 ② 나는 희망진로가 불확실해서 진로결정을 미룸 ③ 나는 희망진로 중 어느 진로도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음 ④ 나는 내 적성에 확신이 없어서 진로설정을 할 수 없음 ⑤ 나는 진로결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함 ⑥ 나는 내가 아는 어떤 진로에도 호감을 느끼지 못함 ⑦ 나는 희망진로가 있지만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결정을 미루고 있음	Osipow,(1980) 고향자(1992)
통제 변수	인구사회학적 속성	성별, 학년, 부의학력, 모의학력, 사회경제적 수준, 성적정도	

3.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해야 하나, 조사의 편의성 및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모집단의 범위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한정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표본표출방법은 조사의 편의를 위해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학생, 여학생 각각 220명씩 임의로 표본을 선정코자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7년 4월 15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고, 자료수집방법은 배포조사법에 따라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한 44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5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35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에서 변수들의 인과구조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척도구성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¹⁾ 및 Cronbach's α 값²⁾을 사용하였다. <표 2>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등의 변수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단일차원성이 확인된 모든 변수들을 공분산으로 설정한 측정모형의 분석결과이다. 측정모형은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등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삭제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여 총 19개의 문항들을 가진 모형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될 측정변수들의 단일차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t(C.R)$ 값이 1.965($p < .001$) 이상으로 유의미하였고, 요인적재치가 모든 변수의 측정항목에서 0.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³⁾, 다중상관자승(SMC) 값⁴⁾도 최소 0.369~최대 0.818로 나타나는 등 사용된 모든 항목들의 단일차원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일차원성이 확보된 측정모형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타당도 검증인 수렴적 타당도와 차별적 타당도 여부를 살펴보면, 수렴적 타당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잠재변수들의 개념 신뢰도 값이 자아정체감 0.836, 사회적지지 0.936, 자기효능감 0.854, 진로결정수준 0.872로 각각 나타났다. 이것은 일반적 기준조건인 0.7 이상의 수치보다 높은 값으로 수렴적 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차별적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의 값을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AVE 값이 0.567, 사회적지지 0.677, 자기효능감 0.498, 진로결정수준 0.695의 값으로 각각 나타났다. 차별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VE 값이 모든 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커야 하는 바(Fornell & Larcker, 1981),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값들 중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 값이 0.6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모든 변수들의 AVE 값이 이를 제곱한 값 0.421보다 커야 한다. 분석결과,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등 모든 변수의 AVE 값이 0.421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차별적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 1) 측정변수인 자아정체감의 측정문항 중 1·2·4번, 자기효능감의 측정문항 중 4·5번, 진로결정수준의 측정문항 중 3·5·6·7 등이 각각 묶이지 않아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Cronbach's Alpha의 계수 값이 0.6이상이면 만족할만한 수준이고, 0.7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채서일, 2013).
 - 3) 요인적재치의 절댓값 0.4 이상이면 개념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Barclay et al, 1995).
 - 4) 측정변수가 잠재변인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다중상관자승(SMC) 지표의 허용범위는 0.2 ~ 0.9로 볼 수 있다.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항목	표준화 요인적재치	S.E	C.R	S.M.C	개념 신뢰도	AVE	Cronbac h's α 값
자아 정체감	자아정체감 3	0.840	0.052	18.031***	.705	.836	.567	.814
	자아정체감 5	0.618	0.051	13.014***	.382			
	자아정체감 6	0.608	0.051	12.755***	.369			
	자아정체감 7	0.836	-	-	.699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1	0.726	0.051	16.172***	.528	.936	.677	.888
	사회적지지 2	0.758	0.052	17.055***	.574			
	사회적지지 3	0.711	0.059	15.748***	.506			
	사회적지지 4	0.687	0.058	15.101***	.473			
	사회적지지 5	0.695	0.057	15.311***	.483			
	사회적지지 6	0.812	-	-	.659			
	사회적지지 7	0.730	0.059	16.281***	.533			
자기 효능감	자기효능감 1	0.735	0.081	11.436***	.540	.854	.498	.802
	자기효능감 2	0.720	0.085	11.289***	.518			
	자기효능감 3	0.649	0.083	10.533***	.421			
	자기효능감 6	0.602	-	-	.363			
	자기효능감 7	0.673	0.083	10.798***	.453			
진로결정 수준	진로결정수준 1	0.876	0.034	26.598***	.767	.872	.695	.905
	진로결정수준 2	0.958	-	-	.818			
	진로결정수준 4	0.789	0.036	22.022***	.622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415.944$ (df=146, p=.000) $Q(\chi^2/df)=2.849$ GFI=.904 AGFI=.875 CFI=.933 NFI=.902 TLI=.922 RMR=.045 RMSEA=.065						

주) *** $p < .001$.

그리고 각 변수의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Cronbach's α 값이 자아정체감 0.814, 사회적지지 0.888, 자기효능감 0.802, 진로결정수준 0.905로 각각 나타나 신뢰도 계수의 값이 각 변수 모두 0.6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표 2〉의 하단에 제시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415.944$ (df=146, p=.000)이고, $Q(\chi^2/df)=2.849$ 로 판단기준 3보다 낮았으며, AGFI=0.875를 제외한 GFI=0.904, CFI=0.933, NFI=0.902, TLI=0.922의 지표 값은 모두 판단기준인 0.9 이상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RMR=0.045과 RMSEA=0.065의 값도 각각 일반적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0.05와 0.1 이하의 수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지준, 2008). 따라서 연구모형은 전반적으로 수용가능한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2.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응답자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성별 분포는 남학생 219명(50.3%), 여학생 216명(49.7%)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 분포는 고2가 115명(26.4%), 고1이 114명(26.2%), 중3이 106명(24.4%), 중2가 100명(23.0%) 등의 순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전체 학생 435명 중, 고등학생 229명(52.6%)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학생 206명(47.4%)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의 학력 분포는 전문·4년제 대졸자가 273명(6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졸 이하 134명(30.8%), 대학원 이상 28명(6.4%)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모의 학력 분포는 전문·4년제 대졸자가 237명(5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졸 이하 182명(41.8%), 대학원 이상 16명(3.7%)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다섯째,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포는 중 수준의 그룹이 250명(57.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 수준의 그룹 132명(30.3%), 하 수준의 그룹 53명(12.2%) 등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여섯째, 학급 내 성적 분포는 상위 50% 이내 134명(30.8%)과 상위 30% 이내 131명(30.1%)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위 10% 이내 106명(24.4%), 상위 50% 이하 64명(1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219	50.3	부 학력	고졸이하	134	30.8	
	여자	216	49.7		전문대·대졸	273	62.8	
연령	중	중2	100		23.0	대학원이상	28	6.4
		중3	106	24.4	모 학력	고졸이하	182	41.8
		계	206	47.4		전문대·대졸	237	54.5
	고등	고2	114	26.2		대학원이상	16	3.7
		고3	115	26.4	학급 내 성적	상위10%이내	106	24.4
		계	229	52.6		상위30%이내	131	30.1
사회경제적 수준	하	53	12.2	상위50%이내		134	30.8	
	중	250	57.5	상위50%이하		64	14.7	
	상	132	30.3	전체	435	1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변수별 평균값 및 표준편차와 변수들 간 상관관계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지지의 평균값은 3.79(표준편차 0.57), 진로결정수준 3.51(표준편차 1.11), 자아정체감의 평균값 3.47(표준편차: 0.77), 자기

효능감 3.47(표준편차 0.63)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측정척도가 5점 척도인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등의 변수에 대한 평균값이 '보통' 점수인 3점보다는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모두가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에 대해 사회적지지와의 상관계수는 .335이고, 자기효능감과는 .649이며, 진로결정수준과는 .162로 각각 정(+)인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사회적지지에 대해서도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계수는 .462, 진로결정수준과는 .210으로 정(+)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 진로결정수준의 상관계수는 .343로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r = .80$ 이상일 경우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배병렬, 2002)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가 .649로 독립변수들 사이에 가장 높은 계수인 바,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수치임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표 4〉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평균	표준편차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	3.47	0.77	1			
사회적지지	3.79	0.57	.335**	1		
자기효능감	3.47	0.63	.649**	.462**	1	
진로결정수준	3.51	1.11	.162**	.210**	.343**	1

주) ** $p < .01$

3. 가설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경로계수 분석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표 5〉와 같이 제시되었다. 먼저 〈가설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정체감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 = 8.571^{***}$, $p = .000$)한 정(+)적인 영향($\beta = .55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으며, 둘째, 사회적지지 또한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5.170^{***}$, $p=.000$)한 정(+)-적인 영향($\beta=.27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가설 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beta=-.109$)을 미치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t=-1.442$, $p=.149$)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 자아정체감이 하나의 자아를 찾아가는 자아통합의 과정에서 진로선택의 외부자극, 내적충동, 도덕적인 가치 등의 스트레스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담을 받기 때문에 진로결정수준이 직접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beta=.071$)을 미치고 있으나, $t=1.211$ ($p=.226$)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2>도 기각되었다.

<가설 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4.368^{***}$, $p=.000$)한 정(+)-적인 영향($\beta=.38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는 자기효능감을 48.8%, 진로결정수준을 12.8%를 설명하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5> 경로계수 분석결과

경로	경로계수		S.E	t값(C,R)	p
	표준화(β)	비표준화			
자아정체감 → 자기효능감	.556	.391	.046	8.571 ^{***}	.000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275	.278	.054	5.170 ^{***}	.000
자아정체감 → 진로결정수준	-.109	-.148	.103	-1.442	.149
사회적지지 → 진로결정수준	.071	.140	.115	1.211	.226
자기효능감 → 진로결정수준	.380	.740	.169	4.368 ^{***}	.000

주) *** $p<.001$

2) 매개효과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에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적 유의미성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이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beta=.211(.556 \times .380)$]에 관해, $p=.00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통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beta=.105(.275 \times .380)$]에 있

어서도,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 반면에, 매개변수인 자기효능감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각각 입증되었다. 이는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6〉 매개효과 분석결과

구분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직접효과	.556***($p=.000$)	.275***($p=.000$)	-
진로결정수준	직접효과	-	-	.380**($p=.002$)
	간접효과	.211**($p=.002$)	.105***($p=.001$)	-

주) ** $p<.01$, *** $p<.001$.

3) 가설검증 결과의 종합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구조적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각 변수들의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부스트래핑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이 제시되며, 경로모형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먼저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은 진로결정수준에 미친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beta=.211(.556 \times .380)$ 만 있는 이유로 총 효과는 $\beta=.211$ 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도 진로결정수준에 미친 직접효과는 $\beta=.071$ 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 $\beta=.105(.275 \times .380)$ 만 있는 관계로 총 효과가 $\beta=.105$ 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만 있으므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친 유의미한 총 효과는 $\beta=.380$ 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자기효능감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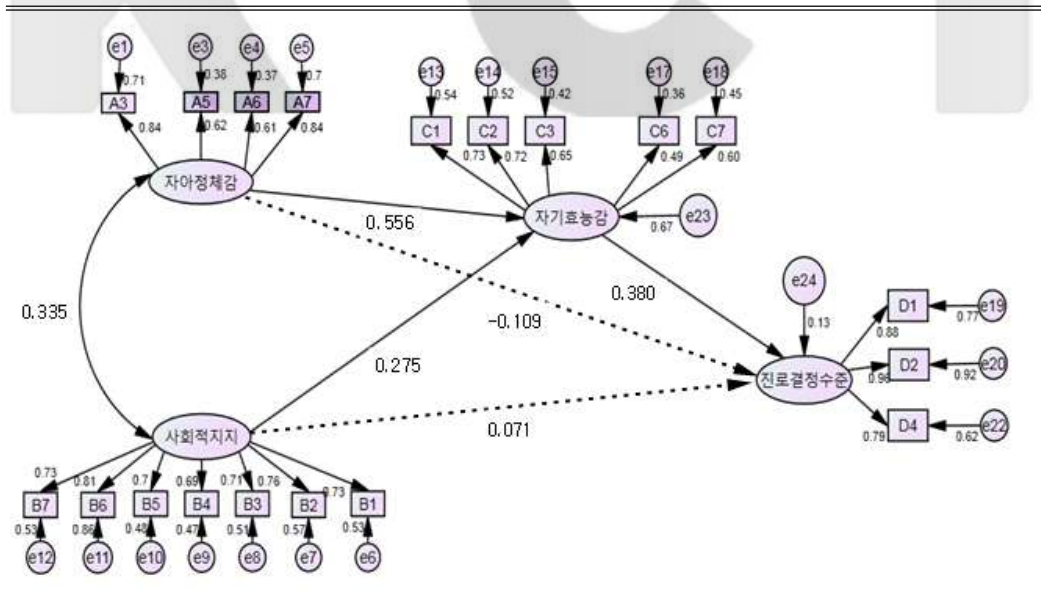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총 효과는 자기효능감이 $\beta=.38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이 $\beta=.211$, 사회적지지가 $\beta=.105$ 의 순으로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자기효능감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과 자기정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지지의 변수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인 것으

로 입증된 셈이다.

〈표 7〉 가설검증의 분석결과 종합

구분		가 설	효과			여부
			직접	간접	총	
가설 1	1-1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556**			채택
	1-2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275**			채택
가설 2	2-1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	-.109			기각
	2-2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071			기각
가설 3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380**			채택
간접 효과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211**		채택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105**		채택
총효과		(자아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211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105	
		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380	

〈그림 2〉 경로모형 분석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의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두고 이들 변수들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그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 및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정(+)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이들 변수들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명실·최경숙(2007), 황현정·백지연(2015), 석민경(2007) 등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자기효능감에 대해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송현옥·박아청·최성열(2010)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조명실·최경숙(2007), 황현정·백지연(2015), 신정옥(2011), 한용재·박지원·박현석(2016), 김중운·김현희(2016) 등 대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서의 효과가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이 통계학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명미·문승태(2005), 고미나·박재황(2008), 김은석·유성경(2013), 서재복·임명희(2014), 황현정·백지연(2015) 등 선행연구에서 밝힌 다수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도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아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한용재·박지원·박현석(2016), 김중운·김현희(2016) 등의 연구결과와 상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매개변수로 설정된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시사한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이상길(2008), 구본용·유제민(2010), 조준오·송주연·김윤희(2011), 이현주(2012) 등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각 변수들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자기효능감($\beta=.38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정체감($\beta=.211$), 사회적지지($\beta=.105$) 순의 기여도 크기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관련성

책결정자들이 향후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한 진로교육정책을 수립할 시,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등의 변수들을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의 크기를 고려하여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그리고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통합적인 모형으로 접근하여 실증적인 확인을 하였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울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경로모형의 형태로 결합시켜, 측정과 인과구조의 관계를 동시에 나타낸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제시하여 변수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보다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자기효능감은 상대적으로 가장 유용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 함양을 위해 긍정에너지인 자기효능감을 충분히 활용하여 진로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 및 실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 사고와 자기수용,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남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로, 이 과업을 제대로 성취했을 때에 자기효능감을 통해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통한 높은 자아정체감 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적지지 역시 진로결정수준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자기효능감이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수준 사이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여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진로선택의 결정을 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통한 높은 사회적지지의 형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이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지지의 긍정적 지원 및 기대효과가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지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청소년들이 상호 소통하여 청소년들

각자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탐색활동의 장(場)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표본추출 대상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로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해야 하나,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모집단의 범위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들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려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집방법은 조사의 편의를 위해 비확률표집방법의 하나인 편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가지고 특정 모집단에 관한 모수를 추정하여 일반화하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확률표본추출 등 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진로결정수준의 결정요인 변수들에 관한 분석결과는 응답 청소년 학생들을 표본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통제변수인 학생의 성별, 성적수준, 학년수준, 부모의 학력 및 경제수준 등 응답 청소년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탐색하여, 각 변수의 유목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임을 입증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된 연구결과로 이론적 또는 실천적으로 기여도를 제고시켜야 하나 지면상 생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물론 후속연구에서도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 검증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은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등의 변수들 이외의 그릿(Grit)이나 진로결정자율성 등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개연성 있는 변수들을 탐색 및 포함시켜서, 인과론적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고기평(2008). 가정의 형태와 사회적지지 및 진로성숙도와와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미나·박재황(200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 결정 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1(3), 69-85.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유제민(2010). 부모의 긍정적 관여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1), 171-187.
- 김민정·김봉환(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아영·차정은(1996). 자기효능감의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은석·유선경(2013).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97-912.
-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4), 5-14.
- 김중운·김현희(2016).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741-766.
- 김현희(2015).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2009).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모형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아청(1984). 자아 아이덴티에 관한 조작적 연구의 방향과 과제. 『교육학 연구』, 22(2), 83-98.
- 박아청·신순란(199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유형 및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17(1), 34-54.
- 박영희(2010).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을 매개변수로 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변세권(2001). 기독교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재복·임명희(2014). 고교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예술, 인문학, 사회학을 접목한 멀티미디어 융합의 아시아태평양학술지』, 4(2), 235-246.
- 석민경(2007). 희망과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현옥·박아청·최성열(2010). 청소년의 가정환경, 지각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17(2), 109-129.

- 신정옥(2011). 대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진로장애,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교육연구』, 19(2), 109-141.
- 심승원(2000).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태용·주은수·박은하(2011).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3), 197-222.
- 오현진(2007). 『입상간호사의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영미·문승태(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1-19.
- 이강현·구우영·정구인·정용각(2005). 『운동수행과 스포츠 심리학』.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이상길(2008).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고교생과 대학생 및 성별간의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217-230.
- 이선영(2004).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이현주(2012). 완벽주의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와 자아효능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동기의 증재효과. 『진로교육연구』, 25(4), 199-220.
- 이훈구(1997). 행복의 심리학-주관적 안녕. 서울: 법문사.
- 임은미·장선숙(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8(4), 139-143.
- 임현승·강성옥·양영미(2012). 시설거주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자아존중감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7 (2). 207-214.
- 정미란(200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삶의 의미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학생활동연구』, 28, 69-93.
- 조명실·최경숙(2007).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3). 1085-1099
- 조준·송주연·김윤희(2011). 예비보육교사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5(5), 55-75.
- 채서일(201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최성열(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영(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유형별 특성과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한수현(2003). 사회적지지와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미결정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한용재·박지원·박현석(2016). 2년제 대학생의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 433-446.
- 황인실(2004). 가족건강성과 중장년기 성인남녀의 자아정체감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현정·백지연(2015).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서학논총』, 24(1), 99-12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J: Prentice 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1997.
- Barclay, D., Thompson, R., and Higgins, C. (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s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ritics, J. O. (1973). *Career Maturity Inventory*. Onterey, CA: CTB/McGraw-Hill.
- Critics, J. O. (1981). *Career Counseling: Models, Methods and Materials*. New York: McGraw-Hill Book Co.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i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February): 39-50.
- Gordon, V. N. (1998). Career Decidedness Types: A Literature Re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6: 386-403.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oberman, H., & Cohen, S.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Changes 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 Addison Wesley Pub.
- Kaplan, H. B., Cassel, J. C., & Gore, S. (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Journal of Medical Care*, 15(5), 47-58.
- Osipow, S. H. (1980). Career Decision Scale: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chunk, D. H. (1984). Self-Efficacy Perspective on Achievement Behavior. *Educational Psychologist*, 19, 48-58.
- Skovholt, T. M., & Morgan, J. I. (1981). Career Development: An Outline of Issues for Me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4), 231-237.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Wanberg, C. R., & Muchinsky, P. M. (1992). A Typology of Career Decision Status: Validity Extension of the Vocational Decision Status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9(1), 71-80.
-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 Wood, R.E., Mento, A.J. & Locke, E.A. (1987). Task Complexity as A Moderor of Goal Effects: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2(3), 416-426.

* **황순덕(黃順德)**: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 교육정책 등이다(hsd1848@hanmail.net).

* **김연희(金嬋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경로분석, 2009)를 취득하고, 현재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복지정책, 계량분석 등이며,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2013), “경찰공무원의 개인-환경 적합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2015) 등이 있다(kyh5010@howon.ac.kr).

* **이희선(李熙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and Basic Human Need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1962-1987, 1989)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조사방법, 계량분석, 정책분석, 사회복지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정책분석론: 제5판」(공역, 2013)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Factors Associate with Suicidal Ideation: the Role of Context” *Journal of Public Health*(December 2012),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in Seoul,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of 4,734 People in 25 Administrative Area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July 2013),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Does Household Context Matter?”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201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hsleehy@hanyang.ac.kr).